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길”

군산시 3차 추경 편성, 코로나19 극복·서민경제회복 대응

군산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정부 2차 추경에 대응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1,243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국도비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추가분 등으로 마련됐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673.8억원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등 현안사업 190.5억원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 ▲ 지방채상환 등 자체사업 187.1억원 등으로

총 1,243억원이 증액됐다. 시는 제3회 추경으로 예산규모가 1조 6,455억원으로 제2회추경 대비 8.2% 증가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45억원, 2020년 25억원에 이어 올해도 44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15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주요사업을 추진하려는 재정계획을 변경해 이자율이 낮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9.1~9.7)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이 되면 추석 전 서민경제회복 대응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군산시민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추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 주간 행사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워크숍·생명사랑 걷기 챌린지 진행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9월 10일 '제18회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워크숍 및 '생명사랑 90,100보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SAP)는 전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자살 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지난 2008년 9월 10일을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시는 자살을 감소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를 '군산시 자살예방의 날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자살 예방의 날 워크숍'은 오는 9월 8일 오후 3시 ~ 6시까지 지역

사회 유관기관 관계자 및 일반시민들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ZOOM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자살예방 선포식, 자살예방 유공자 표창, 전 중앙자살예방센터장 백종우 교수의 초청강연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군산시 생명사랑 90,100보 걷기 챌린지'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12일간) 진행되며, 워크숍을 이용한 비대면(언택트)방식으로 진행된다. 걷기챌린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핸드폰 어플 '워크온' 설치 후 회원가입, '군산시 생명사랑 90,100보 걷기 챌린지' 커뮤니티에 신청해 참여 할 수 있으며, 선착순 300명에게는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오는 9월 10일 오전 은파호

수공예 제1주차장 광장에서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전표지판 이벤트' (은파호수공원 물레잡에 설치돼 있는 안전표지판과 인증샷을 찍어 워크온 게시판에 올리고 커피 받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 대응요원들을 위한 '당신이 영웅입니다' 응원 캠페인 관내 4개 대학(군산대, 군산교대, 군장대, 호원대)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현수막 홍보 캠페인 등 자살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효선 센터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세계 자살 예방의 날 행사 참여를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 해신동 지사협·장애인복지관 협력 저소득 가정 주거환경개선

군산시 해신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수일)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명재)과 연계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비대면 홍보 캠페인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 사례관리를 통한 민·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사업대상 가구는 해신동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누렇게 변한 담고 찢

어진 현 벽지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택보수가 필요한 장애인 2가구에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줬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관이 힘을 모아 낡은 벽지 제거 및 수거, 주거환경 청소와 방역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동참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개선사업의 혜택을 받은 김모(70대) 어르신은 “평소 기력이 없어 염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무슨 복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다.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고맙다”며 좋아했다.

이명재 관장은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해신동주민센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대전 in 익산' 홍보매장을 지난 27일부터 익산역 광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익산역 광장에 '홍보매장'

시, 식품대전 활성화 위 9월 15일까지 운영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대전 in 익산' 홍보매장을 지난 27일부터 익산역 광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홍보매장 운영은 9월 15일까지 이뤄진다.

홍보매장은 철도 이용객과 시민들에게 식품대전 참여 기업의 제품 홍보와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개장일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대전 가족과 함께하는 라이브커머스'와 푸드트러 시식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온라인 네이비쇼핑 라이브 '홍직구' 채널을 통해 이정규·정아영·홍금표 3인의 전문 쇼호스트, 인플루언서가 우수 식품기업 4개사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최대 30%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라이브커머스는 플로렌드가 어린이 시리얼을, 프레시고는 달걀소스, 디자인농부는 우유차 등 차류, 에스디디는 곱창김 등을 판매한다.

시 관계자는 “익산역 홍보매장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식품대전도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대전 in 익산'은 오는 9월 8일과 9일 온라인(www.if-festival.or.kr)으로 개최된다.

식품대전은 국적을 입주 기업의 판로개척과 홍보 등을 위해 쿠팡·우체국쇼핑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비즈니스 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김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합계출산율 전국 평균보다 높아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합계출산율에서 군산시의 2020년 합계출산율이 0.954로 전국(0.837) 및 전북(0.909)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결혼 및 출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군산의 출산율은 감소세가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통해 청년취업 여건이 개선되고, 무료 영유아 보육 제공, 산후조리비용지원 등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오후 10시~오전 5시' 공원에서 음주·취식 금지

익산의 공원과 광장 내에서 야간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27일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공원·광장 내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적용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동일 시간 이후 편의점 실내·외에서도 취식 금지가 제한됨에 따라 야외 취식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행정명령과 함께 야간 특별점검도 강화한다.

행정명령과 편의점 실내·외 취식 여부 등 방역수칙 점검을 위해 15개반, 4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이번 주말까지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모현동, 동산동 등 5개 지역 내 공원, 편의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세노야봉사단과 밑반찬 나눔 봉사

군산시는 세노야봉사단(단장 채영숙)이 결식 우려가 있는 고년아도 사례관리대상 25가구에 월 1회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매달 세노야 봉사단이 직접 만든 반찬을 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소외계층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건강 및 안부확인, 생활실태 점검 등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구축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세노야봉사단은 지역사회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 지난 20년간 한결



같은 마음으로 봉사를 실천하며 무료 급식소 배식활동, 겨울철 김장봉사, 연탄배달 노인목욕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채영숙 봉사단장은 “스스로 식사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회원님들과 마음을 모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힘이 되는 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